홍 역 (Measles)

질병 개요

- 홍역바이러스(Measles Virus)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입니다.
- 주로 홍역 환자의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, 전염력이 매우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%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.
-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, 콧물,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,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. 그러나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가벼운 발열과 발진이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홍역은 MMR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.

국외 현황

- 유럽 : 2016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40개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.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홍역 백신 접종률은 95% 이하이며, 어린이나 성인 모두 백신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유행 중에 있습니다.
- 아시아 :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, 베트남, 필리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아메리카 :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베네수엘라, 미국에서 유행 중입니다.
  대부분 국외유입 또는 유입연관 사례이며, 백신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아프리카 :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유행 중입니다. (2018.9~2019.3. 약 72,000명 환자 보고)

국내 현황

- 2019.4.11.기준, 전국 398명, 경기 161명의 홍역 환자*가 신고 되었고, 국외유입 또는 유입연관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.

  * 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. 홍역퇴치유지위원회에서 확진 및 의사환자로 최종 분류됨

- 2018.12~2019.3.까지 대구, 경기(안산, 의정부), 인천, 경북을 중심으로 다섯 번의 유행이 있었고, 현재 경기(안양), 대전,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 중입니다.

해외 여행자 현황

- 2010년부터 해외여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2017년 약 2,650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.
  이 중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낮은 20~30대의 여행자는 전체의 46.1%를 차지합니다. (출처 :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)
- 특히 최근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필리핀, 베트남,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에 방문하는 여행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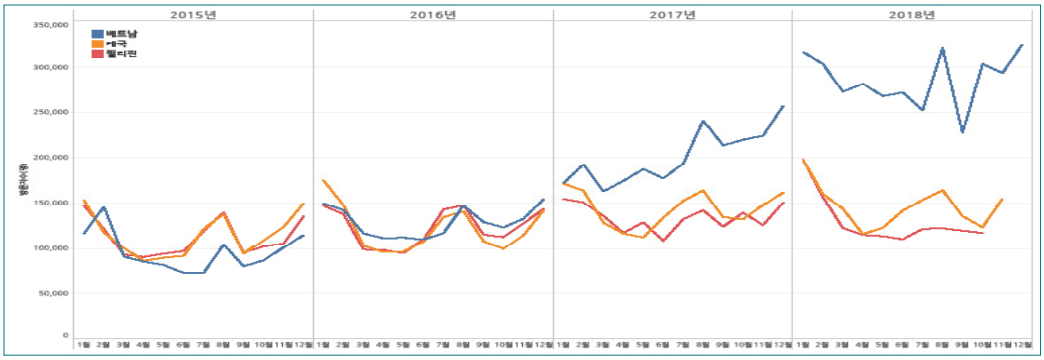

그림1. 베트남, 태국, 필리핀의 대한민국 여행자 추이(2019.1. 한국관광통계)

해외 여행 전, 홍역 예방접종 확인하세요!

- 최근 유럽, 중국, 베트남, 필리핀 등을 통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· 유행지역 방문 전,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는 접종 후 출국합니다.
  · 입국 시 발열,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합니다.
  ·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반드시 피하고, 즉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)로 연락합니다.

출처 : 질병관리본부

GIDCC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GYEONGGI INFECTIOUS DISEASE CONTROL CENTER